광주전자공고·현대자동차, 산학협약

자율주행차 최신기술 실습 교재 기증

4차산업혁명 대비한 의미 있는 협약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2일 현대자동차(주) 광주서비스센터와 산·학협동식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관련 미래 첨단기술 자동차산업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최신 기술교육프로그램과 최신 기자재를 지원받는 산·학협동 협약식은 학생, 교직원, 현대자동차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성대하게 추진됐다.

김용태 교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4차 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산업이 적용된 분야"라고 말했다. 이러한 최첨단 자동차 기술산업은 미래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국가마다 최신기술을 연구 개발 육성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핵심산업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현대자동차(주)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을 우수한 신기술 교보재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우수한 최첨단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이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산학협력 활동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이 자리하여 연간 6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제조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산업으로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발전인프라를 동시에 갖추어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삶에 질을 개선하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산업으로 평가되어 여타의 타시도에서도 자동차 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미래 4차 산업에 핵심기술 기반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으로 모든 가전 홈시어터 등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들이 자동차 하나로 집결되는 초컨넥티드카의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기술인력 수요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과 핵심직무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동승 3학년 부장교사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일자리인 소형 SUV자동차 10만대 생산은 물론 기아자동차 60만대 제조 기술인력에 필요한 우수한 자원을 광주전자공고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기술인력을 육성하는데 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현장직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전국최고의 자동차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전자공업고등학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산학협동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사회, 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함께하는 산학관계를 희망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독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2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10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53.2%의 지지율을 얻었다.

장 교육감의 이런 지지율은 2위(45.5%)와 7.7%p 차이 나는 압도적 1위이며, 전국 시·도교육감 중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도 장 교육감이 유일하다.

장 교육감은 취임 후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조사에서 1위를 되찾은 이래 6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이 깊어진데다 그 구체적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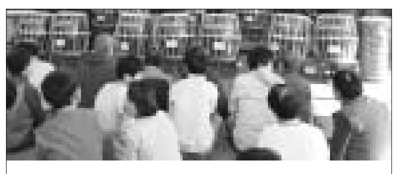
이른바 '전남형 혁신교육정책' 인데, △ 학생 중심 교실개혁 추구 △ 주민참여·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이 그 것이다.

특히,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의 학생 중심 혁신교육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도민들의 호응을 산 것이 지지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졸업식과 성과물 전시회를 통해 9개월여 동안의 활동상이 도민들에게 크게 부각됐다.

또,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의 민주적 생활규정 마련에 적극 나선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리얼미터 10월 정례조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도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이다.

광주화정중학교 인터랙트클럽 지역 봉사



광주화정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랙트 클럽'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실버마사지 기술을 습득하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고자 하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다. 바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랙트클럽'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3년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엔 가까이 다가가기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좋아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할머니와 장애인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매우 기뻤다"는 3학년 문○름 학생, "2년차 봉사활동을 하는데 처음보다 더 재미있고, 부모님께도 더 효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다"는 2학년 이○서 학생 등이 주인공이다.

화정중 '인터랙트클럽'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함께 하게 된 동기나 의지는 달라도 몸으로 실천하면서도 큰 보람을 얻는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 토요일(11월9일)에는 '인터랙트클럽' 학생들이 좀 더 전문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익힌 난타(세토토닌드럼클럽)와 댄스(아투스) 등 4개교가 함께한 공연으로 생활장애인분들에게 기쁨과 미소를 선물했다.

하모니카 연주로 공연재능기부를 함께한 박정현 교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봉사활동"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수능 이후 건전 생활 지도

예비 사회인으로 책임감 부여 교육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와 연계

전남도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각종 사고, 범죄,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비사회인으로서 자기계발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지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하는 등의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는 교과연계 '어울림 수업'과 담임교사 중심의 대화모임을 운영해 공감과 소통의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생자치회 주관 캠페인, UCC 제작 등 '어깨동무 활동' 강화, 관계형성을 위한 뮤지컬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 체험학습 시 부모가 동반하도록 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내·외 취약 지역 및 취약시간대 예방순찰을 강화해 폭력, 절도, 불량서클활동 등 각종 범죄예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을 위해 11월 16일 권역별(서부, 중부, 동부)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버스킹을 열 예정이다.

또한, 시험으로 인한 강박관념과 성적비관 등 고민학생에 대해서는 Wee클래스와 Wee센터와 연계해 사전 상담 및 면담이 이뤄지도록 하여 수능을 치룬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희망스쿨데이 '영웅' 관람

68개교 1200여 명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저녁 7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19 광주 교육가족의 날 희망스쿨데이 공연장 가는 날 '갈라콘서트 영웅'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관내 학교 68개교 학생 및 교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의 교육기부를 받아 진행됐으며 올해 3번째 '공연장 가는 날' 관람 행사로 뮤지컬 배우 강태을을 비롯한 배우들과 오케스트라 호남필하모닉 등이 출연해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영웅'의 주요 장면들을 공연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연장 가는 날' 행사는 그동안 기부형태의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올해는 시교육청에서 보다 수준 높은 문화체험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별도예산을 책정했다. 공연 횟수 및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상반기 뮤지컬 '영웅'에 이어 하반기에는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올해 진행된 광주희망스쿨데이 '공연장 가는 날' 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